

~홍역·풍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홍역·풍진 혼합(MR) 백신

예방접종을 합시다 !

홍역 (마진) 과 풍진은 감염력이 높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장소에서 집단감염됩니다. 최근, 홍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해외 유행하는 나라에서의 방문객이나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바이러스가 국내에 반입되어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풍진은 2012 년~13 년에 걸쳐 크게 유행했으며,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7 년 전국의 풍진환자의 5 명 중 1 명이 10 세 미만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

다. 홍역과 풍진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예방접종 효과가 높은 질병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환자와 접촉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염되어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2 회의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정기접종대상자 (무료로 접종 가능한 연령)

[1 기] 생후 12~24 개월까지 (2 살 생일 전날까지)



1 살이 되면 생일선물로 백신접종을 !

태어나면 산모로부터 받은 면역력이 점차 없어집니다. 1 살이 지나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 초등학교 입학전 1 년간 (5~6 살 : 4/1~다음해 3/31 까지)

초등학교 입학준비로 2 번째 백신접종을! -두번 접종이 필요한 이유-

① 접종 한번으로는 면역력이 생기지 않거나 면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



4 월이 되면 가능한 빨리 예방접종을 해주세요.
위탁의료기관은 여기



- ② 접종 두번으로 98~99%의 어린이들에게 홍역과 풍진 면역력이 모두 생깁니다.
- ③ 홍역에 걸린 경우 합병증을 동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④ 풍진은 임신 중에 걸리면 출산 후 태아에게 선천성풍진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⑤ 장래에 진학이나 취직 시, 홍역 백신접종의 유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11 기·2 기 기간 외에는 임의접종으로 1 만엔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접종간격에 대해서▲▽▲

생백신 (홍역, 풍진, 수두)을 접종한 뒤에는 27 일 이상, 부활화 백신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을 접종한 뒤에는 6 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접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1 회 접종후 2 주간 이내에 발열 (13%) 이나 발진 (3%) 이 나타나며, 보통 1 일에서 3 일 정도면 사라집니다. 2 회 접종시는, 발열이나 발진의 빈도가 매우 낮아 집니다. 매우 드물게 뇌염이나 뇌종 (100 만에서 150 만명 중 1 명 이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

에로부터 홍역은 운명을 결정하는 질병 (홍역에 걸리면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 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감염되기가 쉬워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감염이 되고 회복할때까지 약 7~10 일이 걸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담이 크고, 합병증에 의해 10명 중 1명은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감염경로와 잠복기간

감염경로는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포함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공기감염, 비말감염, 접촉감염이 있습니다. 잠복기간은 약 10~12 일입니다.

◆ 증상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콧물, 충혈, 발진이 있습니다. 최초 3~4 일간은 고열이 38 도 전후였다가, 잠시 안정된 후, 다시 고열과 발진이 나타납니다. 고열은 3~4 일안에 없어지고 차츰 발진도 없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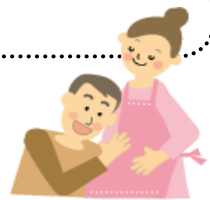
◆ 합병증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뇌염이 있고, 환자 100명 중 중이염은 5~15명, 뇌염은 1,000명 중 1명 꼴로 발생합니다. 또한 수년부터 십 수년 경과후에 증상이 생기는 아급성경화성전뇌염(SSPE)이라고 하는 만성뇌염은 10만명 중 1명 꼴로 발생합니다. 게다가 홍역에 걸린 사람은 1,000명 중 1명 꼴로 사망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위와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풍진은 어떤 질병인가?

3 일 정도면 발진이나 발열이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3 일홍역”이라고도 불립니다. 임신부가 임신초에 풍진에 걸리면 선천성풍진증후군(선천성심질환, 백내장, 난청 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신중인 여성은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성도 풍진에 걸려 주위의 임신부가 감염되지 않게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염경로와 잠복기간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포함된 풍진바이러스에 의해 비말감염이 됩니다. 잠복기간은 약 14~21 일입니다.

◆ 증상

주요 증상으로는 홍역보다 연한 색의 붉은 발진, 발열, 목 뒤의 림프선이 붓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 밖에 기침, 콧물,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합병증

관절통, 혈소판감소성자반증, 뇌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 중에 혈소판감소성자반증이 약 3000명 중 1명, 뇌염은 약 6000명 중 1명정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인이 된 후에 걸리면, 어렸을 때 걸린 것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보건복지센터

오사카시보건소감염증대책과 TEL 06-6647-0656

2018년 4월